

# 등유·프로판가스 값 내린다

## 정부, 세금 줄여 가격 인하 추진 가격 모니터링제 등 제도 개선도

서민용 연료인 등유와 프로판가스에 붙는 세금을 줄여 연료 가격을 낮추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연료 가격 모니터링제와 상표 표시제, 수평거래 문제 등 석유·가스의 유통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어서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도 제고되게 된다.

올 반포동 JW메리트호텔에서 석유·가스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들 연료의 '가격구조 개편'에 대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가격구조 개편의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이들 연료에 붙는 각종 세금이나 부과금을 조절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등유의 경우 1당 134원의 특

별소비세와 23원의 판매 부과금이 붙는 등 전체 가격의 31.7%가 세금이며 프로판가스도 가격의 14.3%를 각종 세금이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값비싼 세금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에서 많이 이용하는 도시 가스나 지역 난방에 비해 현재 주로 서민들이 난방용으로 쓰는 등유나 프로판가스의 실질 가격 부담액이 더 높은 실정이다.

산자부는 아울러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격 모니터링과 상표 표시제, 수평거래 문제, 액화석유가스(LPG) 공동 집배송 등 석유·가스의 유통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로 드러난 가격합합과 폭리의혹 등으로 정유사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정유사들의 높은 사회적 책임

이 요구되고 있다"고 시장 투명성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밖에 현재 유사 석유제품을 알면서 사용한 소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유사 석유제품의 주된 원료인 용제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정유사에서 용제 사용자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도 당부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 국제선 항공료 소폭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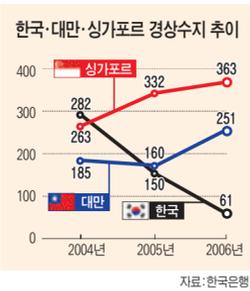
## 내달부터 노선별 최대 9달러 인상

내달부터 국제선 항공요금이 소폭 오른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협률 시장가가 월간당 1.74달러 수준으로 전월의 월간당 1.66달러보다 높아짐에 따라 4월 1일 발권분부터 유류할증료가 노선별로 최소 1달러에서 최대 9달러까지 인상된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기 운항비용 증가분을 요금인상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연초 유가하락으로 지난 2월에 6단계로 기록한 뒤 3월에는 5단계까지 내려갔지만 4월부터는 6단계로 한단계 상황 조정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내달부터 일제히 국제선 항공료를 인상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미주, 인천-유럽 노선 등의 유류 할증료는 기존 34달러에서 43달러로 대폭 올라 장거리 해외 여행객들의 항공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단거리인 인천-동남아, 인천-동북아, 인천-사이판, 인천-독립국가연합 노선 등은 유류할증료가 18달러에서 22달러로 4달러 오르며, 최단거리 노선인 제주-후쿠오카, 부산-후쿠오카는 5달러에서 6달러로 거의 변동이 없다. /연합뉴스

# 한국 경상흑자 '나홀로 감소세'

## 작년 61억달러로 급락 표 주요국 증가세 대조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온데 반해 아시아 주요국들은 경상수지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04년 282억달러에서 2005년 150억달러로 줄어든 후 지난해는 61억달러로 급락했다. 올해는 균형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한은은 전망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적자 반전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만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2004년 185억달러에서 2005년 160억달러로 줄었으나 지난해는 251억달러로 오히려 급증했다. 싱가포르 역시 2004년 263억달러, 2005년 332억달러, 2006년 363억달러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은 2004년 1천721억달러에서 2005년 1천658억달러로 감소했으나 지난해는 다시 1천704억달러로 반등했다. 2004년 687억달러의 경상흑자를 기록한 중국은 2005년 흑자규모가 무려 1천608억달러로 급증했으며 지난해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일부에서는 2천30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 면에서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매직실버폰 이어 '골드·브라운' 출시  
삼성전자는 메탈 소재 휴대전화 열풍을 일으킨 '매직 실버폰'의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 20일 '매직 골드'와 '매직 브라운' 색상을 추가로 출시했다. /연합뉴스

# 새지폐 물 묻으면 지워지고 떨어지고

## 화폐 도안·식별성이어 이번엔 '내구성' 논란

도안과 식별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신권 지폐가 이번엔 '내구성' 논란을 받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신권 관련 게시판에는 신권의 견고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한 네티즌은 "물이 묻으면 도안이 쉽게 번지고 위조방지 홀로그램도 너무 쉽게 떨어진다"며 "얼마전 1만원짜리 신권을 받았는데 홀로그램이 떨어져 일련번호까지 지워져 있어 2~3년은 된 돈처럼 보이더라"고 밝혔다. 한국은행과 조폐공사는 "신권의 내구성이 오히려 구권보다 향상됐다"며 "단지 화폐 도안이 구권보다 비교적 쉽게

지워지는 단점이 있다"고 했다. 조폐공사 측은 "신권 도안이 보다 정교해지고 색상 수가 많아지면서 인쇄에 사용되는 잉크를 바꿨다"며 "이 잉크가 세제에 들어있는 알칼리 성분에 취약해, 지폐를 세탁할 경우 그림이 번지거나 홀로그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22일 발행된 새 만원권과 천원권은 모두 크기가 작아져 구분하기 쉽지 않은 데다, 붉은 색 계통이었던 옛 천원권이 푸르스름한 색의 천원권으로 바뀌면서 녹색 계통의 새 만원권과 구별이 어렵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또 만원권의 가로 길이는 148mm로, 옛 천원권(150mm)과 거의 차이가 안나 촉각으로 지폐를 구분하는 시각장애인들도 이를 먹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5년전 질병 재발해도 보험금 받는다

## 금감원 약관 개선... 내달 시행

앞으로 질병을 치료한 지 5년이 지나 재발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폐이저 수술이나 갑상선암(갑상선)을 이용한 수술, 사이버 나이프(로봇팔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 등 칼을 대지 않는 첨단수술도 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사들이 이런 내용의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따르면 보험계약일 기준으로 치료한 지 5년이 지난 질병이 보험기간에 재발해도 입원비 등 보험금이 지급된다. 현행 보험 청약서상 과거 5년간 질병의 치료 사실만 보험가입 때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는데 일부 보험사가 고지의무도 없는 그 이전의 질병이 보험가입 후 처음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분당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검사목적의 수술 이외에 첨단 기법의 수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기 1년 미만의 손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고 수술을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현행 보험약관은 수술을 '생체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생명보험과 장기 손해보험만 입원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보험사들은 현재 부담보(不擔保·이미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것) 기간이 설정된 암 등 질병보험의 경우 같은 신체 부위에 질병이 재발하면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화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질병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입원비를 지급하는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입원 중에 보험기간이 끝나도 그 이후의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생명보험만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입원기간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주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기업 정치자금 제공 않겠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조석래 회장으로부터 20일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 허용, 재계의 대선 후보 지지 선언, 대기업규제 폐지, 전경련 개혁 등 민감한 정치경제 사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조 회장은 이날 전경련 총회에서

## 조석래 전경련 회장 취임...출중제 필요성 검토

'재계의 수장'으로 선출된 뒤 기자회견과 취임사를 통해 이와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비교적 상세하게 털어놓았다. 조 회장은 "자유시장경제 발달을 지지하는 분이 (대선에서 당선되면) 우리에게 좋겠지만 이는 국민 선택에 맡겨야 된다"며 전경련이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회장은 또 전경련이 일본의 경단처럼 정치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건이 돼 있지 않다"며 "국민에게 정치에 매수하는 것처럼 비쳐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조 회장은 정부와 재계가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출중제 폐지 제도에 대해 "왜 만들었는지, 다른 나

# 해외 짝퉁상품 반입 사절

## 내달부터 여행자 국내 반입 금지

앞으로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으로도 짝퉁상품은 통관이 허가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20일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소량의 짝퉁 상품에 대해서도 통관을 허가하지 않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관매목적이 아니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국제우편이나 여행자휴대품을 통해 반입되는 소량의 짝퉁상품에 대해서는 통관이 허용돼 왔다. 관세청은 그러나 최근 전자상거래와 해외여행객 증가로 짝퉁상품이 소량으로 국내로 반입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특히 해외에 인터넷 서버를 두고 국제우편으로 짝퉁을 배달해주는 불법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가짜 상품은 통관을 불허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여행자 휴대품이나 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짝퉁 물건이 발견될 경우 압수·폐기할 계획이나 소비자들은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전자 금융사기 예방 이렇게

## 금감원, 안전거래 7계명 소개

금융감독원은 최근 피싱(Phishing)이나 파밍(Pharming) 등 금융 사기 기승을 부림에 따라 안전하게 전자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요령을 20일 소개했다. 피싱은 은행이나 쇼핑몰 등을 사칭해 가짜 홈페이지 주소가 들어있는 이메일을 보내 개인 정보 입력을 유도한 뒤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예금 등을 빼내는 것이며, 파밍은 해커가 PC의 호스트 파일을 조작해 고객이 진짜 금융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해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게 해 개인 정보를 훔치는 수법이다. <비밀번호 철저히 관리하라>=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로그인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 및 카드 비밀번호를 서로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피싱 사이트에 속지마라>=인터넷뱅킹 사이트를 모방한 피싱 공격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예금 잔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인인증서는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전자인감인 공인인증서를 해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USB나 CD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해야 한다.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하라>=기능화하는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PC의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SMS 서비스를 이용하라>=전자금융을 이용한 계좌 이체금액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SMS)를 이용하면 다른 사람의 무단 거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금융사에 직접 확인하라>=신용에 관계없이 대출해 준다는 등 상식 밖의 조건을 제시하는 인터넷 사이트 광고나 대출 때 전수금 인금을 요구하는 사이트의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회사 콜센터에 확인해야 한다. <환급 사기 주의하라>=경찰이나 검찰,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세금, 범칙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는 자동화기기(ATM)를 조작하도록 하는 것은 돈을 빼내기 위한 사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송백	전남매일 경력 및 수습기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3	062-360-3500
흥진	전기기사/전기설비시공 가능자 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3/25	062-384-0425
대창 E&T	SK텔레콤 대창대리점 정규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6	062-383-6831
웅진씽크빅	광주시 초등교육 방과후 캠프담당 교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8	062-515-0195
삼창기업	삼창기업(주) 호남사업소 전기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3/30	031-458-8866
도원	[광주] 파피리케트 MD매니저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3/30	062-381-8201
미래에셋생명보험	신인 및 경력 FC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30	062-351-2121
윤창엔지니어링	경리 사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3/30	062-956-2245
SW바이오텍	총무분야 및 인사/기획 사무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30	062-955-0113
광주수원기공	생산/지체 관리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3/31	062-953-5282
광주이우디/스/고진모터스	광주이우디서비스센터 리셉션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31	010-6706-5959
도시환경ENG	R&D 연구원 채용	대졸/경력무관	2800~3000	03/31	062-971-3072
코엔텍	환경영향평가 사원모집	대졸/경력무관	2000~2200	03/31	062-515-4666
삼미기어산업	기술영업 관련 기계관련공자 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3/31	062-954-0303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